

대화 연락 증거

(가사처분/접근금지 명령 신청 관련) 증거제출인:
신청인(피해자)은 가해자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을 보호

증거 1호증 | 명시적 거부 의사 무시 및 주거의 평온 침해

2025년 11월 30일 카카오톡 대화 내용 스크린샷 (번역문)..... 페이지 3-9

사건 요약

가해자는 예고 없이 피해자의 주소지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반복된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문 열어달라"고 약 1시간 가량 대기하며 피해자가 "불편하다"고 명확히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몇년째 여러번 방문 사유를 변경하며 접근 시도를 하였고 가장 최근 시도를 카카오톡 대화 내용으로 증거합니다.

증거 ① | 방문 사유 여러번 변경 및 사실 외곡 (페이지 3 과 6)

① 물건 전달 및 대면을 의도로 방문하였지만 (3 페이지) 앞선 사유들이 통하지 않자 "어젯밤 아빠가 네 꿈을 꿔다"(6 페이지의 ②번)는 비논리적이고 운명론적인 사유를 동원하여 사유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방어 기제를 무력화하려 하였습니다.

증거 ④ | 과거 접근 시도 (페이지 5)

피해자는 예의상 미리 통보하에 방문 동의를 했을 것이라라고 하였지만 가해자의 "안 그랬을 것 같은데" 라는 가해자의 답변은 무단 방문 시도를 과거에 여러번해왔고 피해자 본인이 거부 의사 표시를 몇년간 하였다는 것을 미리 알고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 했음을 자인하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즉, 어차피 거절당할 것을 알기에 거절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기습 무단 방문 하였습니다.

증거 ⑤ | (페이지 7)

⑤ 재발 위험성: 피해자에게 무단 방문으로 귀하를 극심한 불안에 떨게 한 직후,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오겠다"는 예고를 공식적으로 표명 하였지만 실제로 방문하지 않았고 '언제든 내 일상을 침범할 수 있다'는 지속적인 불안감의 조성함으로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지속적으로 파괴하고 가해자가 '자신이 원할 때 언제든 침범할 수 있음'을 증명하려는 통제권 행사에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증거 ⑥ | 모순된 행동 (페이지 6)

안전한 대안 거부: 피해자가 '영상 통화'라는 합리적인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했으나, 가해자는 이를 "싫다"고 단칼에 거절하고 '직접 대면'만을 고집한 이유는 가해자의 목적이 '딸의 안부 확인'이 아니라 물리적 공간을 침범하고 직접 대면함으로써, 20년간 이어온 신체적·심리적 지배력을 다시 확인하고 신청인을 압박하려는 위력 행사의 의도가 명백합니다.

증거 ⑦ | 대면 거부 (페이지 8)

실제로 가해자가 귀가 후 피해자의 영상 통화 제안에는 갑자기 "피곤하다", "두통이 있다"며 회피하는 모습은 증거 6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며,

피해자가 영상 통화는 왜 안 되는지 물었을 때 가해자는 답을하지 못하였습니다. 즉, 가해자는 소통이 목적이 아니라 피해자의 눈앞에 서서 압도하는 것이 목적이며 물리적 접촉만을 고집하는 것은 스토킹 범죄의 전형적인 양상입니다.

20년의 학대를 겪은 후 자신을 보호하며 평온을 선택하기 위해 연락을 제한하거나 방문을 거절하는 것은 이기주의가 아니라 심리적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방어이지만 가해자가 문 앞에 앉아 "출다", "병 걸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피해자의 동정심과 죄책감을 자극하여 조종하려는 전형적인 수법이며 피해자가 20년 동안 느꼈던 공포나 가해진 신체적·정서적 학대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생존 행위'를 이기심으로 매도함으로써, 피해자가 정당한 방어 기제를 무력화하려 하려 시도로 전형적인 나르시시틱 학대자 (narcissistic abuse) 의 특징입니다. (상대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그 독립적인 태도를 '이기주의'로 정의하여 다시 굴복시키려 합니다.)

과거의 학대 경험이 있는 피해자가 재발 방지를 위해 접촉 방식을 제한(영상 통화 제안 등)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위이며 피해자가 자신의 안정을 찾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권리입니다.

증거 2 | 1월 3일 방문 예정 (생일)

2026년 1월 1일 카카오톡 대화 내용 스크린샷 (페이지 10)

- 희생 강요의 일상화: 가해들은 가족이라는 명목하에 피해자의 감정적 희생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피해자의 1월 3일 “생일” 인 이유로 방문을 목적으로 하였고
- 연락하여 최근 다시 "생일 축하해주러 가야지?" 라며 동의 없는 방문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 문장은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는 질문이 아닌 ‘가해자가 이미 방문을 결정했으니 피해자는 수용만 하라’는 지배적 위력의 행사입니다.
- 증거 1에서와 같이 "가족이 있는데 어떻게 생일을 혼자 보내?"라며 죄책감을 유발하는 정서적 학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는 지난 20년간 피해자의 학대에 도움을 주지 않은 방관자였습니다. 현재 어머니의 무단 방문에 단순히 동행하는 수준을 넘어 주차장에서 대기하며 어머니의 지배력 행사를 물리적으로 지원하였거 두 사람이 전략적으로 '아버지의 꿈'이라는 방문 명분을 공동으로 기획하여 실행에 옮기는 조직적 가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부모와 자식간의 갈등이 아니라, 20년간 지속된 학대에서 기인한 지속적 가해의 연장으로 법원의 즉각적인 임시조치(접근금지)가 필요한 증거입니다.

증거 1



요일 : 2025년 11월 30일 스크린샷

첫 번째 사유:
① 물건 전달

엄마 미안한데 나중에 얘기하면 안 될까? 지금
중요한 거에 집중하고 싶어서 그래.)

안되. 나는 널 봐야되 제발

너무 여러 번 물어보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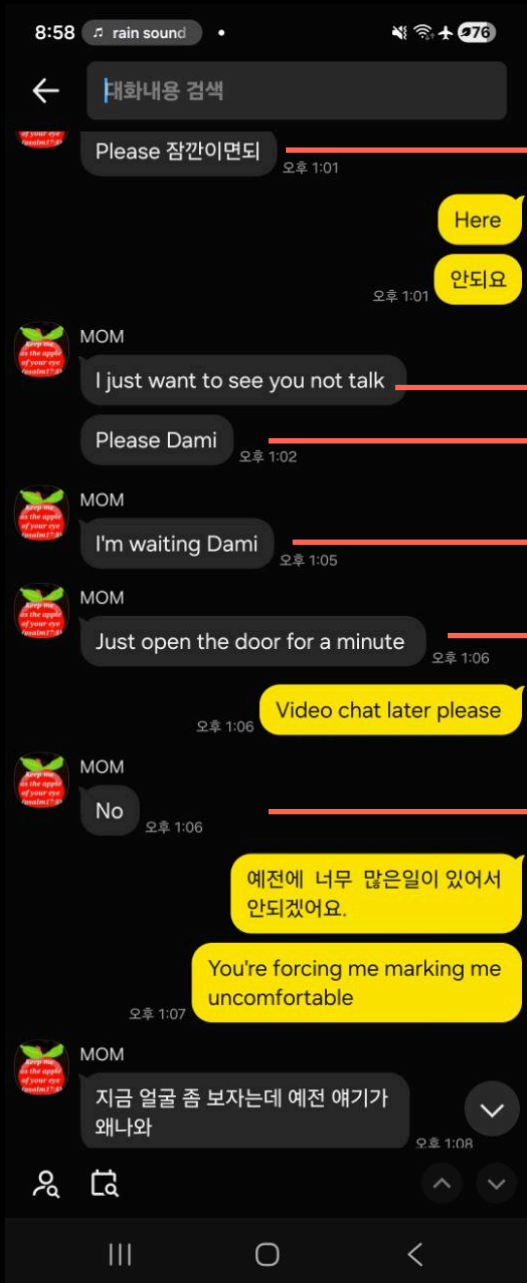
제가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래도 봐야겠어

죄송해요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여기서 [카톡] 말씀해
주셔도 돼요.

제발 잠깐이면 돼



제발 잠깐이면 되.

여기요

대화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얼굴만 보려고
제발, 다미(Dami)야.

기다리고 있다 다미야

그냥 1분만 문 열어

있다가 영상 통화로해요, 제발요

안되

저를 강요하시잖아요. 저를 불편하게 만들고
계세요.

예전 얘기가 나온 이유:
페이지10 참조.....



왜 영상 통화하로 하면 안되나요? 영상 통화가 불편하신가요?

나는 너를 직접 보러 온 거란다. 잠시만.

만약 미리 물어보고 오셨으면 제가 동의 했을 수도 있었어요.

안 그랬을 것 같은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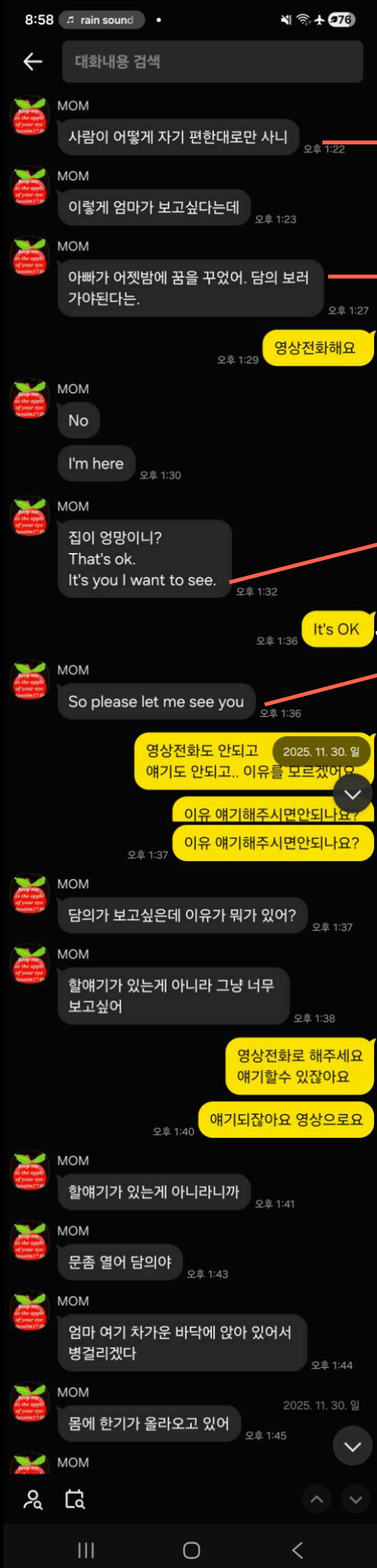
정말 불편해요. 죄송해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그냥 얼굴 잠깐 보면 되는데.

복잡한 게 아니라 제가 불편해서 그래요. 영상 통화가 왜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불편해도 잠깐 보여줘.
두 달 동안 시간을 가졌잖아.
이제 가끔씩 보고 살아야지.
평생 엄마 아빠랑 연을 끊고 살 거 아니잖아.

4



사람이 어떻게 자기 편한대로만 사니

사람이 어떻게 자기 편한대로만 사니

이렇게 엄마가 보고싶다는데

아빠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어. 담의 보러 가야된다는.

아빠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어. 담의 보러 가야 된다는.

영상전화해요

두 번째 사유:
② 미신적인 꿈 예시

No

I'm here

집이 엉망이니?
That's ok.
It's you I want to see.

괜찮아.
내가 보고싶은건 너야.그러니까

It's OK

괜찮아요

So please let me see you

그러니까 제발 너를 보게 해줘

영상전화도 안되고
얘기도 안되고..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 얘기해주시면안되나요?

이유 얘기해주시면안되나요?

담의가 보고싶는데 이유가 뭐가 있어?

할애기가 있는게 아니라 그냥 너무 보고싶어

영상전화로 해주세요
얘기할수 있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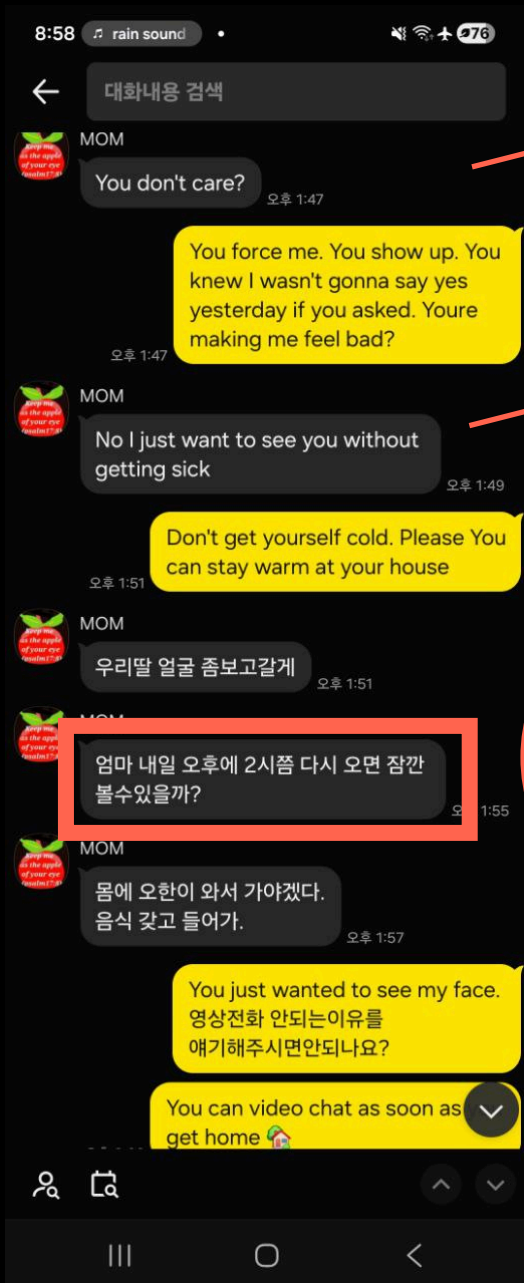
얘기되잖아요 영상으로요

할애기가 있는게 아니라니까

문좀 열어 담의야

엄마 여기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어서 병걸리겠다

몸에 한기가 올라오고 있어



신경 안써?

저를 강요하시잖아요. 그냥 나타나셨고요. 어 제 물어보셨어도 제가 안 된다고 했을 걸 아셨잖아요. 그런데도 저를 죄책감 들게 하시려는 건가요?

아니 그저 아프지 않은 상태로 너를 보고 싶을 뿐이야.

축게 계시지마세요. 제발 댁에서 따뜻하게 계세요.

5

무단 재방문 의사

그저 제 얼굴을 보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영상 전화가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요?

집에 도착하시는 대로 영상 통화 하세요.



그저 제 얼굴을 보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영상 전화가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요?

집에 도착하시는 대로 영상 통화 하세요.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컨디션이 안 좋다. 머리가 아프다. 일찍 자고 싶다. 잘 자. 담(Dam).

제발 잘 쉬세요. 몸이 좀 나아지길 바라요.

민지(고양이)랑 같이 쉬세요.

7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
왜 저를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는 건가요?

너를 보고 싶구나.

영상 통화해요.

안돼
내가 여기 와 있다.

어제 방문하실 거라고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문을 열라고 강요하시는 건
가요?

증거 2

과거 얘기가 나온 이유

피해자는 이에 대해 여러번 답변하였습니다.

20년간 학대해놓고 “가족”이면 다예요?

제가 지난 20년간 정말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살아왔는데 왜 제 부탁은 왜 제 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없게 지낼 수 없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병신” “쌍년” “지랄하네” 저보고 “사탄(악마)야 나가거라!!” 욕설 퍼부은거 다 그냥 가족이면 다예요?

스크린샷 추가 예정

